

파룬궁은 우리 중화민족 도덕의 희망이다

오늘날 도덕성 타락에 따라 사회에는 부끄러운 일들이 매우 많이 나타나고 있다.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를 저지르고는 뺑소니쳤다. 당신이 좋은 마음으로 환자를 구했지만 오히려 모함을 당해 벗어나기 힘들게 된다. 리유는 간단하다. “당신이 이 사람을 치지 않았으면 왜 병원으로 데려왔습니까?”라는 것이다. 버스에서 도둑이 물건을 훔칠때 어떤 사람이 나서서 도둑을 붙잡는다면 달려든 다른 도둑 패거리에게 그 용감하게 나선 사람은 못매를 맞게 되고 도둑맞은 사람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 앞에서 도둑을 당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중국에서 무덕(無德)이 조성한 각종 괴상한 일은 너무 많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중화민족이 가장 불도덕적인 시기에 처했다”고 말하고 있다.

도덕을 잃은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중국 전통문화는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을 높이 받들었으며 옛날 중국인은 하늘을 공경하고 명을 알며(敬天知命) 선악은 보응이 있다는 천리를 믿었다. 그러므로 옛날 사람들은 모두 비교적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유지했다.

중국 공산당은 집권한 후 혁명이란 명의로 무신론이라는 몽둥이를 휘두르며 전통문화를 대부분 파괴했고 전통 도덕도 문밖으로 쓸어 버렸다. 모택동(毛澤東) 시대의 사람들은 나라를 봉쇄하고 공산주의를 경건하게 공양했다. 모택동이 죽은 후 공산주의의 꿈은 소련 해체와 독일 공산당 붕괴에 따라 소멸됐다. 등소평의 고양이론(猫論)’은 사람들을 고양이에 비유하고 쥐만 잡을 수 있다면 수단을 가리지 않고 도덕에 어긋나도 괜찮다고 적극 선양했다. 사람들의 금전과 권력에 대한 추구는 강택민 시대에 와서 더욱 심해졌으며 중공 관리들의 횡령과 부패도 극에 달했다. 강택민과 중공은 ‘쩐싼런(眞善忍)’을 믿는 좋은 사람들을 잔혹하게 탄압했으며 우리 민족의 생존과 발전을 의지하는 도덕을 때려 부셨다. 하여 도덕적 구속이 없는 사회에서 사욕은 홍수처럼 범람하고 맹수처럼 날뛰고 있다.

중국 도덕성의 희망은 어디에 있는가?

중국 도덕 희망은 파룬궁에 있다! 파룬궁 수련생들은 ‘쩐싼런(眞善忍)’을 믿는다. 그들은 진실하

선량하며 관용하고 강인하며 언제 어디서나 우선 먼저 남을 생각하고 자신을 뒤로 하며 남을 대함에 있어 사심이 없는(先他後我 無私無我)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다. 1999 년 강택민이 중공 정권을 리용해 파룬궁을 탄압할 때 수련자가 1 억에 달했다. 이후에 비록 심한 박해를 당했어도 파룬궁 수련생은 신앙을 견지했다. 파룬궁은 1999 년 이후 11 년간 대륙 밖에서 신속히 발전했으며 대만 한 곳만 하더라도 1999 년에 1 천 명에서 50 만 명으로 증가되었다. 파룬궁 수련생은 관리든 평민이든, 부유하든 빈곤하든, 학력이 높은 낮은, 어른이든 어린이 할 것없이 민족과 국경을 뛰어 넘어 지금 전세계 100 여 개 국가와 지역에 널리 전해졌다. 파룬궁은 우리 중화민족의 도덕적 희망이다.

사람들의 도덕성의 상실로 위험과 두려움을 인식하고 도덕을 제고하려고 할 때 파룬궁 수련생을 본보기로 하라. 만약 당신이 높은 도덕적 표준이 있고 마음만 있다면 자신부터 시작하고 지금부터 시작하라. 그렇다면 잃어버린 도덕을 다시 찾을수 있다.

종이공예:

중생구도의 법선은 사부님께서 인도하다



사리의 수수께끼

불교창시자 석가모니가 열반하자 그의 유체를 화장했다. 신도들은 그의 골회속에서 투명하고 빛나며 단단하고 둥근 물체를 수두룩히 발견하였다. 이것이 바로 도를 얻은 고승들이 원적(圓寂)、화장한뒤 나타난 사리(舍利)이다.



이것은 네팔 피니 중화사에 있는 석가모니불의 사리이다.

관찰한데 의하면 사리는 일종 골질결정체로써 사리의 모양과 크기는 각이하다. 1990년12월, 싱가포르 광성법사가 원적, 화장한뒤 그의 골회속에서 빛나고 단단한 사리 480개를 발견했다. 1993년5월7일, 중국 심양 유일한 장전불교 라마교 실승사 대법사 신유력길 고승이 원적, 화장 한뒤 홍,록,황,흑,백 등 다채로운 사리 10개를 얻었는데 큰것은 콩알만하고 작은것은 쌀알만했다. 1975년2월13일, 대만 흠차대신 광흠법사가 세상 뜨자 유체를 화장한후 천여개 사리를 얻었는데 제일 큰것은 직경 4cm이고 갈색을 띠었으며 반짝반짝 빛났다.

력대로 사람들은 사리의 형성에 대하여 의론이 분분했지만 정확한 해답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전법륜”에서 사리에 대해 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 《개공개오(开功开悟)하는 그날에, 이 단(丹)은 곧 하나의 폭발이다. 그것은 모든 공능、신체의 모든 자물쇠와 백귀(百窍)를 전부 폭발시켜 연다. ‘팍’하고 진동하면 전부가 진동하여 열리는데, 바로 이것을 하는데 쓴다. 화상(和尚)이 죽은뒤에 화장하면 사리가 나온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뼈、이(牙)라고 말한다. 속인은 왜 없는가? 바로 그 단이 폭발하여 그것의 에너지를 방출한것으로, 그 자체는 다른 공간의 물질을 대량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그것은 역시 물질로 존재하는것이나 그것 역시 무슨 쓸모가 없다. 현재의 사람은 그것을 아주 진귀한 물건으로 본다. 그것은 에너지가 있고 광택이 있으며 매우 단단한데 바로 이런 것이다.》

여기에서 알수 있는바 화장할때 이 공간의 불은 다른 공간의 물질을 태워 녹일수 없기때문에 사리는 남아있을 수 있으며 도를 얻은 고승 또는 원만히 수련한 사람들만이 사리가 있을수 있다.

도편보도



지난 5월 9일, 한국 서울시올림픽공원에서 파룬궁수련생들이 단체련공을 하고 있다.



이스라엘 토라위브 해변에서 파룬궁학원들이 단체련공을 하고 있다.



지난 5월23일, 무려 1천명 파룬궁학원들이 캐나다 토론토 황후공원에서 파룬따파전수 18주년을 경축했다.



지난 5월24일, 캐나다 울금향명절에 캐나다 천국악단이 오타와시 도스호공원에서 《파룬따파는 좋다》《영원한 단풍잎》《보배를 보내다》《파룬성왕》등 악곡을 연주했다.